



1972년 댐 및 수자원기술 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대댐회는 지난 50여 년을 한국의 댐 발전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그동안 댐 산업의 여건 변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대 임원의 탁월한 리더십과 회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댐 전문 학술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피해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남부지역에 예년 대비 57.2% 수준의 부족한 강수량으로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지만, 수도권은 452mm 이상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양극단의 피해가 발생하며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과 복잡한 물 관리에 대한 어려움의 피해를 그대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물 관리 역량을 높여 극한 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전문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다목적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홍수와 가뭄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댐 전문 학술기관인 한국대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세월 수자원 개발을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일익을 담당해온 자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댐 및 수자원 분야의 개발, 관리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선진화된 국제 댐 전문 학술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대댐회 『창립 50년사』 발간이 댐 기술의 탁월한 발전 역사와 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한국대댐회의 50주년, 그리고 『창립 50년사』 발간을 거듭 축하합니다.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서일원



안녕하십니까. 대한토목학회 제54대 회장인 명지대학교 김철영 교수입니다. 우선 대한토목학회 회원을 대표하여 한국대댐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대댐회는 1972년 창립된 이후 50년간 꾸준한 발전을 이어와 명실공히 댐과 관련 시설의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단체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댐회의 최고 전문가들이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를 비롯하여 여러 관련 문제에 대해 항상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의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노고는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은 매우 엄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날로 두드러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기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댐회 회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국대댐회가 댐 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선도적인 기술을 제시하는 주체가 되어 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대댐회의 창립 50주년을 앞으로의 50년이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대댐회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대댐회 회원 모두 장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토목학회 회장
김철영